

설문대·자청비·영등할망 여신 품고 배 띄워라

탐라문화제

탐라문화제 올해로 60회째 제주 전통문화유산 지키며 무형문화재 종목 발굴 성과 시대 흐름 속 변화 모색하며 또 다른 60년 향한 축제 첫 여성 제관 참여 서제 봉행



6일 탐라문화제 서제로 삼성혈에서 김선영 제주예총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오영희 제주도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등 여성들이 처음 제관으로 참여해 60회 탐라문화제 성공 기원 탐라개벽신위제가 열리고 있다.

탐라문화제의 시작은 제주예술제였다. 한국예총제주도지부(현 제주예총) 창립과 동시에 “제주도 특유의 지방예술문화의 개발과 향상”을 목표로 제주예술제를 열었고 1965년 제4회 대회부터 한라문화제로 이름을 변경했다. 지금의 탐라문화제로 개칭된 해는 2002년이다. 새 천년을 맞이한 2000년에 개최된 한라문화제부터 ‘천년의 탐라문화’가 표어에 등장했고 제주문화의 정체성 정립을 취지로 제주도민 여론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1회 대회인 2002년부터 탐라문화제로 새롭게 출발한다. 탐라문화제를 계기로 산천단에서 봉행하던 한라산신제도 탐라개벽신위를 모시는 서제로 바뀌었다.

이들 후손들에게 전하며 그 위상을 지켜왔다. 방앗물굴리는노래, 귀리길보리농사소리, 멀치후리는소리, 해녀노래, 불미공예 등은 탐라문화제를 통해 발굴된 무형문화재 종목이다. 탐라문화제 기간에 이뤄진 성읍민속마을 정의골한마당축제, 덕수리전통민속재현행사는 지역축제로 발전했다. 제주어말하기대회 등 제주어축제 등 제주어 보전과 육성 조례 제정 등 제주어 전승의 바탕을 만들었다. 하지만 탐라문화제는 세월의 변화 앞에 변신을 모색해야 했다. 축제철만 되면 관력정 등에 인파가 몰리던 한라문화제의 풍경은 수많은 영상 등 불거리가 넘치며 옛말이 되어버렸고, 축제도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했다. 오늘날 탐라문화제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60회를 맞는 올해 탐라문화제는 전통문화의 흐름을 이으면서도 SNS 등을 활용해 젊은 세대와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짜였다. 6일 개막해 10일까지 5일간 민속예술축제, 탐라문화 가장 퍼포먼스 경연, 문화예술축제, 예술문화페스티벌 등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치러지며 또 다른 60년으로 향한다. 이 중에서 미리내아트마켓은 올해 처음 기획됐다. 제주신화 등 제주 이미지를 담은 회화, 조각, 공예 등 칠성로 흑돼지거리에서 도내의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 판매된다. 평일은 오후 5-8시, 주말엔 오후 1-8시 운영될 예정이다.

해상페어리드도 첫선을 보인다. 9일 오후 7시부터 제주항 어선부두~용담포구 구간에서 벌어지는 해상페어리드는 제주신화를 모티브로 만든 조형물로 배를 장식해 진행된다. 설문대할망, 영등할망, 자청비의 이야기가 깃들며 폐막 행사에서 영상으로 그 장면이 공개된다. 폐막 공연은 10일 오후 7시부터 제주아트센터에서 예정됐다. 제주도립무용단, 제주도무형문화재 제주능

“코로나 속 다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김선영 제주예총 회장 60회 탐라문화제 대회사

축제 6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962년 ‘제주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한라문화제’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탐라문화제’는 수많은 제주도민과 세월을 함께 보내며 제주 유일의 전통문화축제로 자리

잡아 제주의 전통과 역사를 알리고, 계승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올해까지도 전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활동의 제약이 생기면서 생태계적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함께한 시간이 자그마치 60년이 되어 이 기쁨을 함께 맞이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탐라문화제는 지난 60년간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축제를 치러왔습니다. 올해도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제60회 탐라문화제는 예년과 같이 시끌벅적하고 정이 넘쳤던 탐라문화제의 모습을 잠시 미뤄두고 도민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며 문화예술을 생활 공간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변하는 것과 변함이 없는 것,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해봅니다. 6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탐라문화제를 함께 축하해 주시며 앞으로 제주도민을 위하여 활약을 펼칠 탐라문화제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어와 함께하는 제주학 주간

제주학센터 설립 10주년 제주어 자료전·세미나 등 제주학진흥원 의지도 모아

제주어와 함께하는 제주학 주간이 펼쳐지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이어가는 제5회 제주학대회·제주학 주간이다.

“탐라문화제 개최 기간 즉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을 제주어 주간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7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칼호텔 대연회장에서 ‘제주학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한국학, 지역학, 제주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가)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 로비에서는 ‘제주학의 기록창고: 제주의 마을제’ 주제 ‘제주학 자료전’도 펼친다.

제주학센터는 지난해부터 제주학 대회가 포함된 주간을 제주학 주간으로 정해 기념 행사를 가져왔다. 올해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제주학대회와 제주학 주간을 주제로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가)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로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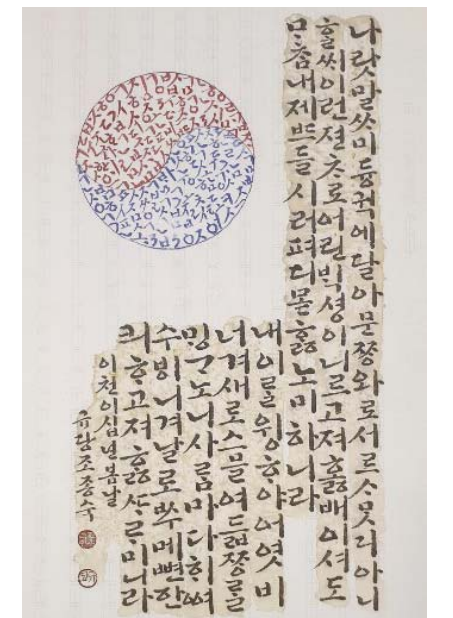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제주학 역사 탐방’을 준비했다. 김진철 박사의 안내로 제주에 유배를 왔던 광해군 관련 유적을 돌아본다. 앞서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가)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로 잡았다. 지난 6일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인장에서 제주어 연구, 교육, 문화 활동을 공유하는 ‘제주어 포럼 날’을 진행했다. 이날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는 제주어 주간 등에 맞춰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제주어를 배우다’란 주제로 ‘제주어 자료전’이 열린다. 제주어보전과 육성 조례에는

제주학센터는 지난해부터 제주학 대회가 포함된 주간을 제주학 주간으로 정해 기념 행사를 가져왔다. 올해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제주학대회와 제주학 주간을 주제로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가)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로 잡았다. 지난 6일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인장에서 제주어 연구, 교육, 문화 활동을 공유하는 ‘제주어 포럼 날’을 진행했다. 이날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는 제주어 주간 등에 맞춰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제주어를 배우다’란 주제로 ‘제주어 자료전’이 열린다. 제주어보전과 육성 조례에는

한글과 제주어 가치 목향 따라 넘실

제주 한글서예사랑모임 2021 한글문화큰잔치

10월 9일은 훈민정음 반포 575돌 한글날. 해마다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과 제주어의 가치를 담은 서예전을 이어온 제주의 한글서예사랑모임이 올해도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문예회관 1-3전시실을 통틀어 2021 한글문화큰잔치를 연다.



초대작가 조종숙의 ‘훈민정음 서문’.

이번 한글문화큰잔치는 고운 우리말 시 등을 여러 글꼴로 써 내려간 제주 등 전국 한글서예작가 80명 초청전, 제20회 한글사랑서예대전 공모전 입상작, 제주에서 자라나는 한글세대인 어린 학생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제20회 제주말서예생서예대전 수상작 전시로 꾸며진다. 2021 한글사랑서예대전 공모전은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높은 호응 속에 치러졌고 한글오피스(대상)에 김애자, 세종상(최우수상)에 김인숙·홍성수 작가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9일 오후 4시 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개막 행사는 같은 날 오후 5시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이뤄진다.

한글서예사랑모임을 이끌며 제주를 넘어 국내외에 한글서예의 매력을 알려온 헌병찬 한글사랑서예대전 운영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랑스런 우리 한글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한글이 미적 조형예술로 창작되며 승화·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작가들의 손에서 다듬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 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는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W 와이덱스 보청기
CGV
광양사거리
← 화북